

조선의 국견 풍산개



세계적으로 특징이 명백한 품종의 하나로 공인되고있는 조선의 국견 풍산개는 매우 용맹하고 이악할뿐 아니라 경리하고 생활력이 대단히 강한 훌륭한 사냥개이다.

풍산개의 원산지는 조선의 북부 고산지대인 황강도 김형원군(이전의 풍산군)일대이다.

풍산개는 경리하고 날래며 적수와 만나면 끝까지 싸우는 이악한 개이다. 특히 사냥에 훈련된 개는 감시를 잘 하고 산에서 주인을 잘 따라다니며 적수가 나타나면 개무리가운데서도 제일 앞장에 서서 싸우는 특징이 있다.

풍산개는 경쾌하게 생겼으며 꼬리가 굵고 탄탄하여 끝까지 서서 산악지대에서도 잘 달린다. 눈은 비교적 작으며 눈동자는 검거나 재빛을 띤다.

키는 비교적 작고 선키로서 앞 또는 옆으로 향해있으며 목은 굵고 짧으며 잘 발달되어있다. 털색은 흰색이 기본이며 연한 누런밤색을 띠는것도 있다.

풍산개는 추위와 여러가지 질병에 걸리는 힘이 강하고 먹성이 좋으며 거친 사냥관리조건에서도 잘 자란다. 수명은 11-12년이다.

조선의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풍산개는 국가적인 관심속에 적극 보호증식되고있다.